

원천강의 남펜네가
 왕이 되젠 허난
 나라이선
 “원천강 남펜넬
 잽허오민 죽여볼키엔”
 스령을 보내여가난
 원천강 남펜넬
 그영혼 스실을
 미리 알고,
 원천강고라.
 “아무날 아무시에
 누게가 날 좇앙 오고대라
 “몰르키엥”만 배기라.”
 허여 두언.
 이넉은 장판뒤에 간
 장황굽을 파고
 그디 지새독을 싱거서
 그쏘굽에 들어얏안
 공비를 하고.
 우티는 장황을 싱거부니,
 스령이 원천강 남펜을
 심으레 오라도
 7딱 좇지를 못하고
 돌아가곡 돌아가곡
 하였수다
 그영허난 허를날은
 나라이서 궤를 내연
 예펜넬 내세완.
 시슬난 애기를 업전
 보내니,

이 예편이
원천강신덜 가고,
“너의 남편 어디 갔느냐?”
“나는 간 디 몰른다.”
하니,
“왜, 남편 간 곳을
몰르겠느냐?
이놈의 족속 좇아만지면
애개 돌아정 죽겠다.
이 애기 시슬 나도록
배린 채도 아녀곡.
돈 훈푼도 아니당하여 주곡.
어서, 이 애기 말으라.”
하니,
원천강은 남편이
이녁 몰르게 어딜 간
죽은 각실 얻언
애길 낳시카부댄.
장황뒤에 간
지새독을 올라 제쳐불멍.
“너. 이 놈아.
너 이쳐록 각실 얻언
애기 시슬 나도록
날?라 훈말꺼리 아녀곡
너 이 놈아, 나오라.”
경흐난.
흘 수 엇이
원천강 남편이 나오난
원천강 남편을
나라레 오꼴 심어 가불엿수다.
원천강 남편은 잡혀 가명.
원천강?라 흐는 말이.

“너 이년이
좀즈만 해시민
사흘 후젠
하늘에 올라강
왕이 되영 펜안이 살곡.
훌륭한 사름이 될 건디
입을 잘 못들른 때문에
이젠 나라이서
나를 심어가불민
너는 살 수가 엇일 테이니.
원천강이나 뵙 살라.
너의 팔즈다.”
하니.
부인이 글로부떠
“원천강”이엿 흡네다.

<한경면 조수리 여무 54세 조술생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13-614.